

총론

본 보고서는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남부경제회랑지역 중소기업 발전방안: 실행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알파카 산업, 커피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사업 (Co-operative Programme) 및 농공단지(Agro-Industrial Complex)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알파카 산업

안데스 산맥의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식하는 알파카 모(毛)의 특징은 길고, 부드러우며, 광택과 보온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연색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알파카 등의 축산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경제활동으로 동물의 털과 아크릴 등의 인조섬유와 혼방하여 생산되는 니트 제품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보급되고 있다.

페루의 알파카 산업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352,762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직물분야는 알파카 섬유의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중요한 입지로 인해 192,78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알파카 축산업자는 15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페루의 알파카 산업에 대한 정책 및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페루의 알파카 산업은 기업(업체) 분야에서 고유브랜드가 취약하고, 직기가 노후되어 있으며, 단순 하청 및 임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다. R&D 측면에서는 핵심기술과 제품 차별화가 미흡하며 미래형 원천기술개발이 부족하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업종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인력 측면에서 현장 및 전문기능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종합하여 페루 알파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1) 알파카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우선, 교육·연구역량이 탁월하고 연구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인근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연구훈련센터(RTC, Research Training Center)로 선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고, 알파카 산업의 전문교원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선정 및 집중 지원은 연구·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단기간에 크게 창출될 수 있다. 센터를 통하여 패션·디자인 분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더불어 알파카 업

체 인력에 대한 재교육 전문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교과과정은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학과 또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 및 현장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역량 확충에 목적을 두고 개설한다. 정부는 시범기관의 전체 지원액 외에 관련인력의 훈련비를 별도로 지원하여 안정적 기능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디자이너 및 패턴사의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디자인 및 패턴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우수 인재에게는 해외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단기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포상하는 제도 또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셋째,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알파카는 제조비용을 낮추려 하기보다는 차별화·고품질 제품화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하여 타겟시장 변화를 꾸준히 파악하고 신시장과 틈새시장을 신속히 개척하며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인력의 경우 유치에 어려움(비용, 정주여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타겟을 은퇴인력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입출국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Guest House 건립, 전문인력에 대한 5년간 소득세 면제 적용 등 제도적 여건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해 국가별, 품목별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외 전문인력의 기술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겟 시장의 정보를 보강하고 네트워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고성장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이나 남미, 동유럽 등의 섬유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출증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알파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에 Cuzco지역에 알파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계획되고, 촉진되고, 육성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자금과 잘 훈련된 협력자(faciliator)가 필요하다.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체는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 시스템 통합자(system organizer), 전문요소 공급자(specialized suppliers)인데, 이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분업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업클러스터는 작동된다.

알파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정부지원 연구센터를 한곳에 집적시키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훈련센터나 여러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의 클러스터 내에 정착하며 외부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센터, 관련업체의 기술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파카 산업을 견인할 특성화 연구소 설치를 통해 연구시설 및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활용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소는 정부 출연(원)으로 독립·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공동브랜드 활성화

페루의 알파카 섬유산업의 브랜드 가치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산업·경제 환경 전망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여 세계 top 10 기업의 배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하여 세계 시장 개척 및 시장의 다변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기여 가능한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브랜드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하여, 페루 국가 브랜드 가치와 개별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장가능한 중견기업의 독자 브랜드 스타기업으로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 성장 유망한 소규모 기업들을 중견기업 내지 브랜드 스타기업으로 육성시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에 이은 세계 5대 컬렉션으로 페루 컬렉션(Peru Collection)의 위상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한 마케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공동브랜드 제품을 직접 공급·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들이 해외 현지에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접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저부가가치·범용제품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생산체제로의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고기술과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수요창출형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린(lean)생산방식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한 민첩(agile) 생산방식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 생산시스템(Strategic Flexible Production System)을 구축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색상과 디자인이 인터넷을 통해 입력되자마자 생산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가 작성되어 관련 부품업체에 전달되고, 단기간 내 생산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신속히 배송되는 시스템이 있다 (박훈, 2003).

4) 알파카 섬유패션 스트림간 협력사업 추진

이태리, 프랑스, 일본 등 섬유 선진국은 섬유패션 스트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사업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을 만드는 화섬·방직은 주로 대기업이고, 옷을 만드는 의류·패션 부분은 중소기업이 많아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도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대·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파카 산업도 스트림간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알파카 섬유패션 스트림간 기획,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으로서 섬유스트림 사업과 패션스트림 사업 2가지를 제안하는데 먼저, 섬유스트림 사업은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섬유스트림 사업은 2년 이내에서 총 2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패션스트림 사업은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

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1년 이내에 총 2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의 정부의 지원은 알파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스트림간 공동 생산과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세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노후화된 설비 교체 지원 사업

알파카 섬유산업에 속한 영세기업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노후화된 설비 교체지원 사업’은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자를 선정하여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시설의 근대화, 경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국모방협회를 통한 인터뷰 결과, 울토폰공정(소모) 및 카보나이드(방모) 공정 등의 소모사 공정비용은 추당 200만원(신규)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규모는 울토폰에서 원사까지 만드는 공정비용이며, 보통 1라인은 7,000 추 규모라고 한다.

한국의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업력 5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에서 업체당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 커피 산업

페루 내의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커피는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영농수출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며 전체 페루의 수출 중에서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피는 페루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페루는 유기농 커피의 1위 수출국, 전통적 커피의 여섯 번째 수출국으로 페루의 농산물 수출에서 24%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며 농업의 VBP중 7%를 차지하는 4번째 영농 분야이다. 페루 커피는 제35회 Global Coffee Awards에서 고품질 커피로 뽑혔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나 평가는 미미한 편이다.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홍보나 마케팅이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커피 맛은 일부에서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보다 더 좋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커피 산업의 정책 및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규모화 사업 전략

페루의 커피 조합은 개별 조합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간 출하처 확보 및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 또는 작목반이 개별적으로 농협 물류 센터,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여 출하처와 출하시기가 중복되고 가격이 불안정하다. 결국 조합간 상호경쟁으로 인해 시장교섭력이 취약하고 거래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중앙회 유통활성화사업단의 기획과 지역본부 주도로 연합사업을 추진하여 조합간 출혈경쟁을 극복하고 규모화를 달성함으로써 시장교섭력 강화와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커피연합사업단을 설립한다. 커피연합사업단을 통하여 출하조절을 실시하고 직거래 확대, 출하협약을 체결하고, 수발주를 일원화할 수 있다.

규모화 사업전략의 또다른 방안으로서 기업형 경영방식 채택을 고려해 보자. 기업형 경영방식이라 함은 앞서 제시한 커피연합사업단의 개개 조합이 각각 얼마씩의 현금출자를 통해 커피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기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동사업법인은 외부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등 기업형 지배구조를 채택하여 경영효율성을 추구한다.

2) 지역고유브랜드 개발

공동브랜드를 도입하고, 다양한 소비계층을 공략하기 위해 브랜드를 세분화한다. 현재처럼 조합마다 지역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개별 브랜드로 각각 커피를 출하하게 되면 브랜드 육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추진시 거래교섭력이 미약한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작목반 또는 조합단위 출하는 수급상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과부족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규모화에 의한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브랜드를 통하여 시군, 광역, 대규모 물량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내부 참여 주체의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품질관리를 통한 차별화된 상품 생산

품질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포장단위 및 박스 디자인의 변경과 동시에 공동브랜드의 집중적·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교섭력을 향상한다.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상품의 규격 및 소포장을 개발하는 것도 차별화 전략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검품요원 운영 및 공동선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품질 차별화를 위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검품요원 운영 및 공동선별을 강화한다. 전체 상품을 샘플 검사하는 검품요원과 공동선별 작업장 출하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검품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검품 성과 제고를 위해 검품요원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조합간 교체 검품을 규약화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판로 확보

페루커피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동상표 개발·홍보를 지원하여 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커피 생산자 관련 조합 및 단체가 개최하는 구매상담회 지원과 우수 품질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담회·판매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

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무역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3. 자동차 부품 산업

일반적으로 자동차산업은 수송수단을 생산함과 동시에 종합기계 산업으로써 산업연관효과와 기술파급효과, 그리고 고용창출 능력이 매우 높고 국제수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페루 자동차 부품시장은 미국, 일본, 브라질, 중국, 독일산 부품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2002년도부터 중고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자동차 부품 시장이 약간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부활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신제품의 경우 미국, 일본, 브라질, 한국, 중국, 독일 등에서 페루로 유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연간 3억 달러 수준이다. 현재 페루에 서는 자동차 부품이나 부속품 제조사가 지극히 적어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페루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Tacna의 중핵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세계적인 Cluster를 형성해야 한다.

페루 자동차 부품 산업의 목표와 중장기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목표 : Tacna 자동차 부품 산업 도시로서의 세계적 부품 산업 거점기지 구축 및 부품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차 기업 설립

중장기 로드맵은 크게 기반조성 단계, 역량강화 단계, 국제화 단계의 3단계로 나눠 수립한다. 현재 페루는 산업화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반조성 단계(2013-18)에서는 도로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역량강화 단계(2019-22)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부품 R&D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단계이다. 기반조성 단계의 세부 수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며, 특히 네트워크 측면에서 Global하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단계(2023-25)에서는 페루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의 궁극적 목표인 완성차 기업 설립과 본격적 부품 산업의 국제화를 진행한다.

Tacna 자동차 부품 산업 도시 클러스터로 변화되기 위해 몇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부품소재 단지의 조성

Tacna 지역의 일부분을 지방 산업 단지로 지정, 이곳에 자동차 부품 소재 특화단지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집적화 단지를 조성한다. 집적화 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소 유치, 지원기관 집적화를 위한 임대 공간 제공, 다양한 공공기관 연구소 유치, 연구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 내 연구개발 인력 확보, 이들의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 과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2)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기능 수행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는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핵심이다. Tacna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 혁신 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본 센터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혁신과 품질 및 신뢰성 향상, 창업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부품시험 평가인증지원, 시제품 가공 및 계측 지원, 산.학.연.관 공동 연구 개발 지원, 창업보육을 통한 기술개발 및 업체육성, 부품업체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있다.

3) 자동차 기술 센터 및 자동차 관련 학과 개설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보완을 위한 연구지원시설로 자동차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자동차 선박 대학원을 비롯한 연구교육시설을 유치한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고급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인근 대학에 자동차 기술학과를 개설하거나 자동차 기술대학을 설립 한다. 학사과정, 석사 과정, 박사과정을 개설해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생산기술, 메카트로닉스 전공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4) Tacna 오토 홍보관 건립

자동차 산업도시로서 Tacna의 지역이미지를 강화하고 취약한 지역 내 지식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의 국제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 공간, 컨벤션 공간, 회의실, 임대오피스, 숙박시설, 스포츠 레저시설을 겸비한 인텔리전스 빌딩을 Tacna 지역 전시 컨벤션 단지 내에 건축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설명하는 사항들이 전제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클러스터라는 특성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본 사업은 자동차 완성 업체와의 기술 제휴.협작과 납품에 대한 협약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셋째, 본 사업 착수 이전에 철저한 Master Plan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혹은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반드시 페루 중앙 정부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

4.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 사업(Co-operative Programme) 및 농공

단지(Agro-Industrial Complex) 개발 사업

페루 정부는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능력의 부족, 경영관리능력의 부족, 시설 및 기술의 낙후 등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결과는 서로 맞물리는 악순환을 보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 연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모델은 민간부문 주도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관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중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적시되었다. 중개기구의 역할은 정부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주도형 모델은 농공단지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낙후지역의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집합체의 한 부분인 이 산업단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외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 감소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페루 정부에서 건설을 구상 중인 사이언스 파크와 농공단지의 연계는 농공단지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성공의 가능성은 동일 지역,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여타 개발 관련 정책이나 계획과 연계될 때 한층 높아진다.

농공단지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부경제회랑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설계와 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 자원의 희생이 강요되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중개기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정책중개기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공 가능성과 나아가 남부경제회랑지역 전체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기관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장에서의 논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과 조치를 권고한다.

- 1) 남부경제회랑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공동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을 설계
 - 미등록 중소기업의 등록을 유도
 - 중소기업을 더 큰 규모의 기업 단위로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의 고안
 -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구성
- 2) 남부경제회랑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공공부문 주도의 공동 연대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개발을 위한 커피, 알파카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농공단지 개발 계획의 고안
-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중개기구의 설립
 - 정책중개기구는 정부에 의하여 수립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행

- 정책중개기구의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 설립된 기술혁신센터를 강화 또는 재구성
- 4) 지속적 자금 투입을 요하지 않는, 푸노에의 알파카섬유 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방안 고려
- 5) 커피, 알파카 등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의 개발
- 6) 비슷한 관점에서, 남부경제회랑지역 지역 특산물 생산자를 위한 정부 조달 배려
- 7) 지역 특산물 생산자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특히 기술 역량의 배양
 - 한국의 “은퇴 기술자 파견 프로그램” 활용
- 8)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개별 중소기업의 적합성 및 농공단지 희망지역 평가시스템 지표 개발
- 9) 성장 낙후지역의 개발, 빈곤 감소 계획, 환경 개선 계획 등 개발 관련 정책이나 계획과 농공단지 개발 계획과의 연계
- 10) 농공단지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심기업과 대학,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 산학연 연계 증대에 의한 혁신 역량의 공유
- 11) 쿠스코나 푸노와 같이 특화산업 집산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농공단지 규모를 확대

남부경제회랑의 성공적인 지역 개발 가능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과제를 자세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제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별개의 연구로 다루어져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공동 연대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재구성

협동화사업의 성공 가능성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주요 주체 즉, 협동조합의 설치는 필수적이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가칭)」의 입법화를 권고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조합의 정의
- 비공식 중소기업의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합원의 자격
-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과 판매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수익계약제도(Collective Private Contract System)

2) 「중소기업육성및공식화에관한법(Ley de Promocion y Formalizacion de la Micro y Pequena Empresa, Law on the Promotion and Formalization of Micro and Small Industry)」의 개정 또는 「중소기업진흥법(SME Promotion Act)(가칭)」의 제정

협동화사업이나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향후 전개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 중소기업 범위의 재검토
-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금의 설치
- 기금의 관리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중개기구의 설치
- 정책중개기구의 사업 범위
- 정책중개기구는 신설하거나, 정부가 기존 조직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CITE(Centro

de Innovacion Tecnologica, Technological Innovation Center)나 PROMPYME 등의 조직 강화 또는 재구성도 검토

3) 여러 가지 법 또는 제도와의 연계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여러 가지 법 또는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필요 시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관련법의 개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 「농공단지예관한법(Act on Agro-Industrial Complex)」
- 「공공구매예관한법(Act on Public Procurement)」
- 「조세감면예관한법(Act on Exemption and Reduction of Taxes)」